

# 김현우 헤더골 '16강 청신호'

### U-20월드컵 한국, 남아공 1-0 꺾고 F조 2위 6월 1일 아르헨티나 최종전 비기면 16강 가능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물로 첫 승리를 따내고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9일(한국시간) 폴란드 티히의 티히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F조 2차전에서 후반 24분 터진 수비수 김현우의 헤더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 1-0으로 이겼다.

한국은 이날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지난 포르투갈 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경기 흐름을 바꿔놓은 엄원상(광주FC)이 이강인(발렌시아), 조영욱(FC서울)과 2선에 서고 193cm 장신 공격수 오세훈(아산무궁화FC)이 원톱으로 포진했다.

대표팀은 한국 축구의 기대주 이강인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선(공격형 미드필더)으로 전진시켰다. 3선에는 광주급 호고 출신 김정민(리퍼링)과 정호진(고려대)을 배치시켜 이강인의 수비 부담을 줄였다. 남아공은 4-4-2 포메이션으로 맞대응했다.

한국은 남아공의 날카로운 공격에 유효슈팅 없이 전반을 마치는 등 전반전 내내 고전했다.

전반 12분 만에 첫 슈트를 기록한 한국은 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서 남아공 시메시를 움켜잡고 날린 슈트를 골키퍼 이광연이 가까스로 막아내 실점 위기를 모면했다.

경기 초반 약했던 빗줄기가 장대비로 바뀌며 수중전이 펼쳐졌다. 남아공의 매서운 공격이 이어졌지만 골키퍼 이광연의 선방으로 실점 위기를 극복했다.

답답했던 흐름은 후반들어 바뀌었다. 초반 남아공은 다소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이를 놓치지 않고 한국이 주도권을 잡았다.

중원에선 이강인이 특유의 키편과, 패스로 공격을 주도했고 전반에 부진했던 엄원상도 장기인 스피드를 살려 남아공 측면을 파고 들었다.

광양제철고 출신 주장 황태현도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며 남아공 왼쪽 측면을 무너뜨렸다.

한국은 남아공의 골문을 계속 위협했고 후반 16분에는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정호진이 날린 회심의 원발 슈트가 골대를 강타하기도 했다.

후반 24분 고대하던 첫골이 터졌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정민이 투입한 불이 수비수의 발에 맞고 골대 앞에서 높게 뜨자 공격에 가담한 중앙수비수 김현우가 헤더로 남아공 골대 왼쪽 구석에 볼을 밀어 넣어 대회 첫 득점을 기록했다.

수세에 몰린 남아공은 후반 22분 뒤늦게 공격수 코디상을 빼고 에이스 라일 포스터(AS모나코)를 투입했지만 경기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1차전에서 포르투갈에 0-1로 진 한국은



포효하는 김현우 김현우(가운데)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티히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기에서 후반 선취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세리머니를 하며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아공을 꺾고 1승 1패(승점 3·골득실 0)를 기록, 이날 아르헨티나(승점 6·골득실 5)에 0-2로 패한 포르투갈(승점 3·골득실

-1)에 골득실로 앞서 조 2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다음달 1일 새벽 3시30분에 열리는 3차전 아르헨티나 전을 최소한 비기

기만 하면 16강을 노려볼 수 있다. 각 조 3위 가운데 조별리그 승점·골 득실·다득점·페어플레이 점수순으로 순위를 가려 6팀

가운데 상위 4팀이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오른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태환



나상호



이희균



김태곤



엄원상



김정민



허울



엄지성



신승훈

## 금호고 '축구 명문' 우뚝

### 김태환·나상호 등 U-17부터 성인 A대표까지 연령별 국가대표 9명 배출

'축구 명문' 금호고가 5월 한달 9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광주FC와 금호고는 29일 "이달 들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되거나 예정인 선수들은 모두 9명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광주 축구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태극마크를 단 주인공은 김태환(29·DF·울산현대), 나상호(22·MF·FC도쿄), 이희균(21·MF·광주FC), 김태곤(20·GK·광주FC), 엄원상(20·FW·광주FC), 김정민(19·MF·FC리퍼링), 허울(18·FW·이하 광주FC U-18), 엄지성(17·MF), 신승훈(16·GK) 등 9명이

다. U-17부터 성인 A대표까지 전 연령대에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가 분포했다.

금호고 태극 전사의 '만행'인 김태환은 기성용의 금호고 1년 후배로 광주 토박이다.

자신의 SNS에 '광주의 아들'이라고 적어놓은 그는 광주 축구 발전을 위한 아이

콘이다. K리그2 득점왕 출신의 나상호 역시 FC도쿄로 이적 후에도 광주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내 리그 복귀 시에 광주 유니폼을 입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최근 치러진 FA컵에서는 동료선수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두 선수는 내달 7일(호주)과 11일(이

란) 평가전을 치른다. 유스 출신으로 올 시즌 광주에 입단한 이희균과 김태곤은 내년 7월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을 준비한다.

두 루키는 김학범 감독의 부름을 받아 내달 3일부터 일주일간 강원도 정선에서 치러지는 1차 국내훈련을 소화한다. 2019 FIFA(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조별리그를 치르고 있는 엄원상과 김정민은 광주생의 미래다.

빠른 99년생으로 U-20 대표팀에 합류한 엄원상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1대1 돌파, 뛰어난 개인기량을 갖췄다. 고교 시절부터 해외 클럽에서 주목을 받아온 김정민은 지난 시즌 레드불 잘츠부르크 이적 뒤, FC 리퍼링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다. 둘은 29일 열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남아공을 꺾는 데 힘을 보탤다.

엄원상은 측면 공격과 약삭같은 수비, 김정민은 중원의 영향력을 높이고 공격적인 임무를 분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로 데뷔를 앞둔 유스들의 활약도 눈

에 띈다. 엄지성과 신승훈은 지난 10일 울산에서 U-17 대표팀 3차 국내 훈련을 착실히 소화했고, 허울은 25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는 U-18 대표팀 중국 4개국 친선대회를 치르고 있다.

금호고 최수용 감독은 "광주 U-18팀인 금호고는 김태영, 윤정환, 고종수를 비롯해 박현범, 기성용, 이승기, 백성동, 김경중 등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해 냈다"며 "광주 축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스타 선수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300만 관중 돌파

### 270경기만에...KIA 관중도 상승세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가 정규시즌 개막 270경기 만에 3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 28일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열린 대전을 비롯한 잠실, 문학, 창원, 고척 등 5개 구장에 총 5만6553명의 관중이 입장해 누적 관중 302만1679명을 기록했다.

지난 7일 183경기 만에 200만 관중을 넘어선 이후 87경기만이다.

개막 이후 100만 관중까지 90경기, 100만명에서 200만명까지는 93경기가 소요된 것에 비해 기간이 단축됐다

평균관중 또한 100만에서 200만 기간 동안 1만881명에서 1만1525명으로 증가했다.

구단 별로는 28일 현재 두산 베어스가 홈 30경기에 44만6055명이 입장하면서 10개 구단 중 최다 관중을 기록하고 있다. 뒤이어 롯데 자이언츠 36만9757명, LG

트윈스 36만7489명, SK 와이번스 35만 1588명, NC 다이노스 32만2296명 순으로 5개 구단이 3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당 평균관중은 LG 트윈스가 1만5312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대비 가장 관중이 많이 증가한 구단은 NC다.

선두권 싸움을 하고 있는 NC는 새 구장 효과까지 더해 올 시즌 65%의 관중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는 29만 3521명으로 7% 증가했다.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KIA도 최근 연승 행진 속에 관중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KT와의 홈경기에 올 시즌 두 번째로 많은 1만8046명이 입장하는 등 주말 3연전에 4만136명의 관중이 챔피언스 필드를 찾았다.

이어 한화 23만3903명, KT 19만6277명, 키움 16만114명을 기록 중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74회 US여자오픈이 열리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에 전시된 역대 한국인 우승자 사진. 왼쪽부터 전인지, 재미교포 미셀 위, 박인비, 최나연, 유소연. US여자오픈은 30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연합뉴스

## US여자오픈 한국이 점령 골프장 곳곳 태극낭자 사진

제74회 US여자오픈이 열리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파72·6천732야드)에는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는 한국 선수들의 사진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에는 박세리(40)가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는 사진이 걸려 있다.

분격적으로 잔디밭이 보이기 시작하면 2017년 우승자 박성현(26)이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도 만날 수 있다.

이어 클럽하우스로 가는 길목에서는 2005년 우승자 '버디 캣' 김주연(38)과 2008·2013년 우승자 박인비(31), 2009년 우승자 지은희(32)의 옛된 사진이 전시돼 있다. 클럽하우스 앞에는 유소연(29·2011년), 최나연(32·2012년), 전인지(25·2015년)의 우승 사진이 있다. /연합뉴스